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2



최 경 준 ·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 법대 79 학 번

1	2019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축하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나눔의 가치 최경준 ·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 법대 79학번
4	서울법대 사람들 오영걸, Stephan Sonnenberg, 정준혁 교수
7	서울법대 사람들 해커톤프로젝트 · 손윤서, 윤상원, 윤혜연, 이서호 학생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배움터 준비위원회 · 김근호 학생 학술지 편집장 · 김성운, 박희윤, 염주민, 홍영완 학생
10	COVID-19로 인해 생긴 변화들
11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신임 원장단 취임 교육지원센터 설립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설립 법학전문대학원 일반 소식
14	연구소 · 센터 소식
16	릴레이 도서 추천
C3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발전기금) 안내
C4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0. 5. 1 — 2020. 8. 31

함
께
일
하
고
싶
은
법
률
가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졸업식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축하만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생의 한 여정을 훌륭하게 완주한 여러분들에게 우선 한 분 한 분 모두가 무척 자랑스럽고, 수고가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법대를 떠나는 날입니다.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 날이라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졸업하는 분들은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서울법대 졸업생이란 타이틀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을 너무 무겁게 짊어질 필요도 없지만,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됴됨이가 모여 바로 서울법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뤄내는 만큼 서울법대인의 성과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주변에 도움을 주고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는 유용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며, 여러분의 선배로서 하나의 조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고 싶은 법률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법률가는 실력이 뛰어난 법률가, 법령과 판례를 잘 아는 법률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법률가는 협력하는 태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배려심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단지 지적으로 우수하고 혼자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분을 졸업식장에서 직접 만나 한 분 한 분 학위기를 수여하며 작별 인사를 하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비록 오늘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중한 시절을 보냈던 모교를 늘 생각하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동료들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이것으로 축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기 정 원장



최경준 ·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 법대 79 학번

기 부 는 투 자 와 같 습 니 다

금전적인 수익 대신 보람과 자긍심이라는 다른 보상을 가져다줍니다

최경준 변호사(법대 37회)의 모교에 대한 첫 기부는 올해 새롭게 꾸며진 김장리홀이다. 우천법학관 2층의 다목적실을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 김장리(Kim Chang & Lee)를 설립하신 김흥한 변호사와 이태영 박사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한 김장리홀로 조성하는 기금을 2019년 12월에 출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법대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5억 원의 Kim Chang & Lee 기금을 약정한 그는 이번 기부를 통해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가 법대 37회인데, 기부를 결심한 지난해가 졸업하고 3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교에 어떤 관심을 가졌었는지 돌아보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모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준비과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3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한 그는 고교 재학 시절 수학에 재능이 있었고,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 그리고 서울법대에 재학 중이었던 형(최성준, 법대 33회)의 영향을 받아 법과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다.

“입학 첫해에 가을 축제 바로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여 축제가 취소되고, 다음 해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등으로 사실상 1년 동안 대학생활을 못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법학 공부는 논리와 법칙이 있는 학문이어서 제 성향에 맞았고,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우리 법과 다른 체계를 가진 영미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며 영미법 공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에 합격하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1년 4개월간 근무 하였던 법원을 휴직하고 새로운 배움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1년 석사 과정만 마칠 생각으로 미국에 갔는데, 짧은 공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판사를 사직하고 1년만 더 공부하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결국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 LL.M.(은행법),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 석사, 뉴욕 대학교(NYU) 로스쿨 J.D.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법학을 4년간 공부하고 나니 그때서야 비로소 미국식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보스턴 소재 로펌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뒤, 1993년에 귀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로펌인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기업법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기업 자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998년부터 10여 년간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변호사 업무에 몰두하였고, 이 기간 중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김장리와 법무법인 평산을 합병하여 설립한 법무법인 양현(영문명 Kim Chang & Lee)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로펌 운영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변호사를 지도하고 지켜본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탄탄한 기초이다. 기본을 잘 체득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된다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진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 너무 조급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했다.

“로스쿨에서의 3년간 교육으로 법조인 양성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뚜렷한 확신이 없더라도 우선 다양한 일을 접하고 배울 기회가 주어지는 로펌에 입사하여 앞으로 수십 년 법조인 생활의 초석이 될 기초를 쌓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 후 천천히 전문성을 기르고 진로를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후배들이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며 그는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면 법조인으로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 자체도 윤택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체력 단련과 취미 개발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미래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취미생활 등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흡족한 보상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기사 작성 | 법학발전재단 조형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범준 학생기자

인생에서 꾸준히 버티는 힘



오영걸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전공분야인 신탁법, 영미법, 비교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학 신탁법 석사 및 박사를 마친 후, 국립대만대학교 법학원 및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로스쿨에서 약 6년간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오영걸 교수는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에 오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였다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주어진 데에 감사하고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하였다.

영미법과 신탁법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원래 관심 있던 거래법 분야의 국제 규범이 ‘영미화’되고 있다고 느껴 영미법을 배우고자 하였고, 영미법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분야가 신탁법이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 비교법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 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앞으로 학문에 관심이 있는 후속세대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또는 이슬람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다.

오영걸 교수는 교육자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끝까지 버틸 힘을 주는 스승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 스스로 박사유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William Swadling 교수로부터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다. 오영걸 교수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 지도교수가 故 Peter Birks 교수로부터 물려받았던 가운을 그에게 입혀주고, 교수들이 식사하는 하이 테이블에 초대하여 같이 식사하였던 경험을

꼽았다. “그때 제 지도교수님은, 앞으로 학문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Peter Birks 교수의 가운을 입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값진 추억이 제가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영걸 교수는 부임한 후 1년간 ‘비교사법’, ‘신탁법’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영미민사법’ 등의 수업도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현재 특히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영국법제사이다. 기회가 되면 ‘영국법의 이해’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영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의 판결문에서 법리를 찾는 방법 등 초심자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의 지식을 전수하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마디를 물었다. 이에 그는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마음에 늘 담고 있습니다. 기쁜 일에 너무 들뜨는 것도 좋지 않고, 힘든 일에도 지나치게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꾸준히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하였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가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이소연, 1학년(12기) 이창희 학생기자

법, 그리고 인간의 존엄



Stephan Sonnenberg 교수는 2020년 3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하버드 로스쿨과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임상 강사로 8년간 재직했고, 부탄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2020년 1학기과 여름학기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 ‘비교사법’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2학기에는 ‘국제비즈니스협상’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Stephan Sonnenberg 교수는 주로 인권 분야를 연구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인권’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였는데, 인권이라는 용어가 일방적 ‘권리’만을 의미할 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학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부탄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서울법대가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하고 임상법학 커리큘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시점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다른 로스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국 학생들에 대한 첫인상을 묻자 한국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몰두하여 임상 분야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걱정했지만, 이번 임상법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열정을 확인했고 교수로서 만족도도 높았다고 하였다.

하버드 로스쿨 재학시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다양한 전공과 법학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즐거웠다고 하였다. 공학, 인류학, 보건학 등 다른 학문과 법학을 연결해야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서울대

학교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엄청난 화력(fire power)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잘 모르는 전공의 강연이나 세미나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주제가 나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건설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특히 공익법률센터의 클리닉에 집중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공헌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너무 순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냈고 그 덕에 많은 특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할 차례죠.” 특히 그는 머지않아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Stephan Sonnenberg 교수의 연구가 서울대학교에서 더욱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2기) 이창희·이태희 학생기자

M & A 스타의 새로운 도전



정준혁 교수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M&A) 분야 전문 변호사로 13년간 활동한 이후 2020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이번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회사법특수연구’의 강의를 마친 그에게 첫 강의의 소감을 묻자, “비대면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2017년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M&A에서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준혁 교수는 연구와 실무를 하면서 회사법, 특히 M&A의 매력에 매료되었다고 밝혔다. “M&A는 기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배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M&A 변호사로서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M&A 변호사는 M&A 계약 및 회사법의 스펙셜리스트이자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해결하는 제너럴리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인접 분야를 접하게 된다는 점을 또 하나의 매력으로 꼽았다.

정준혁 교수는 젊은 나이에 “올해의 M&A 변호사”(리걸타임즈) 및 아시아 지역 “40 under 40”(투스슨 로이터 Asia Legal Business)에 지명되고,

Chambers, Legal 500 등 세계적인 로펌 평가 기관으로부터 회사법 및 M&A 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뒤로 한 채 학계에서의 제2의 삶을 택하였다. 그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법과 금융법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는 한편, PEF, 스타트업 및 산업 혁신 분야로 관심사를 넓혀갈 계획이다. 2020년 2학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회사법’ 강의와 일반대학원의 ‘상법특수연구(PEF, VC와 스타트업)’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장차 실무에서 법률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정준혁 교수는 “스스로 커리어 빌딩을 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과정을 잘 따라 오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실무로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이 정해진 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률 이슈가 등장하는 오늘날에 법률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후배들에게 당부하였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강라인·김범준 학생기자

해커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공익신고에 대한 저희의 관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윤서 · 윤상원 · 이서호 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19년 5월 출범한 이래 서울법대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보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공익법률센터는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손윤서, 윤상원, 윤혜연, 이서호 학생과 함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가 주최한 코로나 해커톤 대회에 참여하였다.

코로나 해커톤 대회는 글로벌 리걸 해커톤(Global Legal Hackathon) 대회가 COVID-19 사태를 맞아 FT와 협약을 맺고 COVID-19 상황 하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공모한 특별 행사이다. 대회에서 개설된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팀은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전문 로펌 'Constantine Cannon'이 개설한 프로젝트로서, '코로나 지원금의 타 용도 편취 관련 내부고발 활성화 프로젝트'에 유일한 한국 팀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위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네 명은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남희 교수, 김재원 변호사,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등의 지도하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내부고발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10쪽 분량의 PPT와 5분 분량의 동영상 제작하였다.

사회적인 문제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해커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익신고 분야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학생들은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해커톤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입법 제안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 제안에 관하여는 공익제보자의 인정범위에 대해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기존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관련 법제도를 정리·소개하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법률가나 공익신고 경험자와 매칭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가칭 '위드휘슬(withwhistle)'을 준비하고 있다.

해커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익법률센터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으로 미혼모 법률상담 매뉴얼 제작, 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난민재신청 조력,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보노를 기획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함께 예비 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강라인·이소연, 1학년(12기) 양건호 학생기자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정말 좋은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행복하였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로 예정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신입생들의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 행사가 취소되었다. 2020년 새터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 위원장 김근호(12기)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2020년 새준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간단히 소개한다면?

“COVID-19로 행사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새준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인 새터를 위해 노력했다. 전임 새준위원장님과 새준위원분들께 작년 새터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이후, 각 새준위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준비했다. 그 결과 새터티와 자료집은 새터 행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무사히 제작되어 학우분들에게 배부되었다.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새터 행사인 만큼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Q. 새준위 활동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새터를 준비하던 기간 동안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지 않았다. 사전답사를 가기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새준위원들은 답사 당일 버스를 타러 모이고 나서 답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행사가 확정 취소된 다음 각종 업체들과 맺은 계약들을 취소하는 과정이었다. 준비한 내용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

이 복잡하기도 했고 상실감도 무척이나 컸다.”

Q. 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준위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역시 '사람'인 것 같다.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정말 좋은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행복했다. 지금도 새준위원들끼리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새준위원들끼리는 그때마다 '새안새영', 즉 새터는 안했지만 새준위는 영원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Q. 2021년 새터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 같다. 그래도 미래의 2021 새준위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2019년 새준위원장님과 새준위원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2020년 새준위를 도와주셨기에 원활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새터를 준비한 경험을 살려, 우리도 내년에 2021년 새준위에 게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자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실전은 못 해봤지만 이론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새준위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철저히 숙지한 이론이 내년 새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동훈, 1학년(12기) 이창희 학생기자

한 권의 책이 나왔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염주민 · 홍영완 · 박희운 · 김성운 학생

이번 호는 학술지 「법학평론」,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 「공익과 인권」, 「Law & Technology(이하 로앤텍)」의 발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관한 인터뷰를 싣는다. 「법학평론」은 2010년부터 로스쿨 동아리에서 발간해온 학술지이며, 「JKL」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이하 '아태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로스쿨 동아리가 2009년부터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공익과 인권」은 2004년 창간 후 2010년 재창간되어, 학생들로 구성된 인권법학회 소모임에서 펴내고 있다. 「로앤텍」은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발행해 온 학술지로 로스쿨 학생들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Q. 학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학평론 편집장 홍영완(이하 **홍**): 「법학평론」은 법률가들이 최전선의 법률문제를 분석한 '연구논문'과 학생 편집위원의 최신판례 분석을 담은 '판례평석'으로 구성된다. 학년 당 18명의 편집위원이 6개 부서에서 일하며, 동아리 지도교수님 세 분의 지도를 받고 있다.

JKL 학생편집장 박희운(이하 **박**): 「JKL」은 한국법의 여러 분야를 해외에 알리는 목적의 영문학술지로, 법학영문 간행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되어 있다. 주로 논문과 판례평석을 실지만 학생이 작성한 student essay를 싣기도 한다. 논문 주제는 한국법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주제든 가능하다. 학생 편집위원은 2020년 1학기 기준 총 33명으로 편집위원 교수님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공익과 인권 편집장 염주민(이하 **염**): 「공익과 인권」은 학생 주도 학술지로, 공익·인권에 관련된 글이라면 자격 제한 없이 투고를 받고 있다. 주로 공익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투고하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등이 투고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기준 총 19명의 편집위원이 공익인권법센터 소속 교수님들과 인권법학회 지도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발행하고 있다.

로앤텍 학생편집장 김성운(이하 **김**): 「로앤텍」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 다양한 기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게재하는 학술지다. 학생 편집위원은 기수 당 6인 내외로, 1년간 총 6권의 학술지 발행 업무에 관해 편집위원 교수님들을 보조한다.

Q. 학술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달라.

홍 연중 1권 발간되며(4월), 1학기에는 등재할 연구논문을 확정하고 보조 작업을 시작한다. 여름방학에 연구논문 초안을 마무리하고 학생 판례평석을 작성하며, 2학기에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에 대한 퇴고 과정을 거쳐 겨울방학에 최종 원고가 완성된다.

박 연중 2권 발간되며(2, 8월), 영문 논문은 발행일로부터 4~5개월 전 아태법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논문을 모집하여 투고 즉시 심사자를 선정, 심사를 부탁드린다.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교수님들 주도로 진행되며 학생 편집위원은 이를 보조한다. 저자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후 학생 편집위원들이 논문의 각주 편집을 한다.

염 연중 1권 발간되며(9월), 이를 위해 전년도 겨울방학에 저자를 탐색, 접촉한다. 3월 초 계획서 형식으로 투고 받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7월 경 각 저자가 글을 완성하여 전달하면 8월까지 편집 작업을 마친다. 편집 작업은 세 차례 정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고, 완성된 원고를 9월 초 출간하여 교내에서 출간기념회를 연다.

김 홀수 달에 격월로 발간되며, 원고 모집 및 등재 여부는 정상조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분들이 결정하시고, 학생 편집위원은 등재가 결정된 원고의 편집 및 교정 작업을 한다. 매번 투고되는 7~8편의 원고를 학생 편집위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배분한 후 각자 맡은 원고에 대해, 오타와 교정부서 글의 흐름이나 내용상 보충 등까지 폭넓게 교정 작업을 진행하고, 저자 및 출판업체와 연락을 취하여 피드백을 받는 등의 과정을 전담한다.

Q.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의 힘든 점, 보람, 배우는 점에 대해 말해달라.

홍 힘든 점으로는 까마득한 선배님들에게 투고 요청 연락을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권의 책이 나왔을 때 보람이 매우 크고, 소통, 협업 능력,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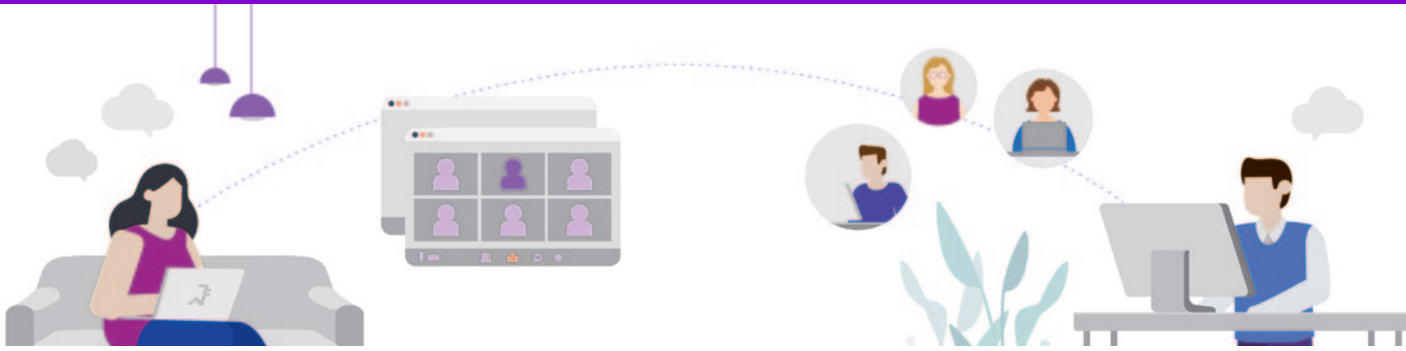
박 논문 심사자를 섭외하는 것이 다소 힘들 때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법, 위기 대처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영어 법학 용어를 자주 접하는 것도 장점이다.

염 학외 저자를 섭외하는 과정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학술지에 비해 학생 편집위원들이 편집에 발휘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더 뿌듯한 점이 있다. 공익과 인권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배울 수 있고, 협업, 이메일 작성 능력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다.

김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원고를 보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도 하다. 기술과 법 분야의 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또 교정 과정에서 저자분들과 연락하고 소통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 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동훈·이소연, 1학년(12기) 양건호 학생기자

COVID-19로 인해 생긴 변화들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2020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학술대회나 학회 활동 등의 대면 모임 또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법대 구성원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올해 입학한 한 1학년 학생에게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물었다. “강의를 듣기 위해 따로 이동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편했고, 통학에 들일 시간을 아껴서 공부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주신 교수님의 수업은 복습할 때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교수님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에 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 3학년 학생은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실무연습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점에 관해 우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교수님들께서 평소보다 많은 보충자료를 나눠주시고 강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며, 학생들도 금방 비대면 강의에 적응해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열람실이 개방되지 않아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교내 학회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많은 학회들은 토론회로 진행되는 일정들을 취소하고 활동을 쉬어가야 했다. 한 1학년 학생은 “소규모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 외에는 아는 원우가 거의 없는 것이 아쉽다.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 학기에는 대안적인 방식으로라도 다양한 수업 외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회는 Zoom 회의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라도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입법정책학회는 Zoom 회의를 통해 발제하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기 중 6차례 정도 활동을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학회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다. 한 학회원은 “Zoo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디오가 맞물리는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고,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잘 모르니 의견 교환

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학기가 비대면이어서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다음 학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번과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학회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세미나의 모습 역시 변화하고 있다. 각종 법학회의 상반기 학술대회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일부 학회는 발표자와 청중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회의 방식인 웨비나(webinar)를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학회는 오프라인으로 학회를 개최하되 참여자를 제한하고 회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였다.

2020년 5월 7일 ‘데이터 3법 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개최한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던 백대열 법무관에게 웨비나의 장점과 한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백대열 법무관은 웨비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높은 접근성을 들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사회자가 수합하고 적절히 정리하여 발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반면 청중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 학술대회를 기회로 다른 연구자들과 직접 만나 교류할 기회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진 교수는 웨비나가 갖는 영향은 학술대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비법조인을 다수 포함한 청중을 상대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웨비나가 갖는 장점을 여실히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온라인 회의가 학자들 간의 교류와 단합의 장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현재, 하계계절학기 강좌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그간 폐쇄되었던 열람실이 재개방되었다. 열람실 이용자 모두가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학습 공간에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회와 학술대회 역시 온라인 회의 진행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만큼 다음 학기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범준, 1학년(12기) 신서연·양건호·이린 학생기자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할 것



한기정 원장



천경훈 교무부원장



이동진 학생부원장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기정 교수가 2020년 6월 1일 제7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기정 원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끌 예정이다.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천경훈 교수가, 신임 학생부원장에는 이동진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한기정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한다. 천경훈 교무부원장은 교무 전반 이외에 특히 대외기관과의 교류 및 기금 업무를 맡는다. 이동진 학생부원장은 학생과 밀접한 학사운영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한기정 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진 서울법대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씩 두벽두벽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원장단이 임기 중 달성하려는 주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2019년 필수과목에 대한 S/U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고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교육 성취도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므로, 서울법대에 걸맞은 교육 성취도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학습 분위기 조성, 교육 펠로우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려 한다.

둘째, 서울법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울법대는 지금까지 법원, 검찰, 로펌, 법학계 등 주요 직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로스쿨 졸업생의 로펌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법원, 검찰, 그리고 학계에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신설된 공익법률센터, 교육지원센터,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역할을 나누어서 노력하고 있다.

셋째,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활성화다. 이를 위하여 하계국제강좌를 내실화하고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서울법대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지 「Journal of Korean Law」를 Scopus에 등재시키는 작업, 지역법에 관한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작업 등을 추진하여 서울법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끝으로 원장단은 법대 학생과 동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1895년 근대 법학의 뜻을 올린 이래 서울법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라는 역할을 다해 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학문적 수월성은 물론이고 공익성과 국제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서 우리 학생 및 동문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모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서울법대의 발전을 위해 수고할 원장단에 박수를 보내며 서울법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이소연, 1학년(12기) 이태희 학생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 설립



‘펠로우 세션’부터 ‘슬기로운 공직생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생들의 학습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가 2020년 2월 설립되었다. 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인 최계영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따뜻한 미소로 인터뷰를 시작한 최계영 센터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설립 과정에 대해 “2019년부터 1학년 전공필수 과목에 S/U 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가를 통한 양성보다 교육을 통한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펠로우 변호사들이 채용되었다. 이 펠로우 변호사들과 기존의 가이우스 조직을 합쳐서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 센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센터장은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펠로우 세션을 운영하며 피드백을 통해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가이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센터에서 하는 일이며, 특히 공직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어 공직 준비에 관한 수기집을 발간하고, 로스누에 ‘슬기로운 공직생활’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3학년 실무연습 과목에서도 개별 피드백을 진행해 왔고, 이번 학기에는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교수님들의 강의 방법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졸업한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는 한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학기 동안 운영했던 펠로우 세션, 실무연습, 공직 지원을 연말까지 잘 지속하는 것이 목표이고, 연말에는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센터는 어떠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최계영 센터장은 “부센터장은 가이우스 주임 교수가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홍진영 교수가 맡고 있고, 현재 4명의 교육 펠로우 변호사들과, 가이우스 재학생 조교 4명,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함께 활동했던 단기연구조 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지원센터 활동의 일환인 로스누 ‘슬기로운 공직생활’ 게시판은 법무관 2명의 운영하에 2020년 2월에 졸업한 로클력들과, 검사들로 구성된 공직 멘토단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최계영 센터장은 “졸업생들에게 이 일을 부탁할 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전에는 미처 도움을 주지 못하고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선순환’이라는 ‘슬기로운 공직생활’ 기획 의도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 또한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센터에서 특히 공직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준비와 공직 시험 준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것을 힘들게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물론 민간 영역에 학생들이 진출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공직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역시 국립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모든 졸업생을 위해서도 진출하는 직역이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출범한 교육지원센터가 운영상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학생마다 상황이나 공부 방식이 다르다 보니 최적의 지원 방식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방학 때 ‘종합실무연습’ 수업의 참석을 했는데, 한 번에 150여 명의 참석을 해야 하다 보니, 단 2명의 펠로우 변호사만 근무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인력이 부족했다. 전체 모의고사 12번 중 3번 정도를 지원했지만 그래도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렇게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자원을 투입할지가 고민된다. 게다가 센터 운영 첫 학기가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보니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펠로우 세션에서 제공할 양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 역시 힘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센터가 펠로우 세션과 가이우스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계영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센터는 1학년 전공필수 과목과 3학년 실무연습과목 등의 정규 수업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만큼 교육지원센터의 홍보보다는 센터 자체의 일에 충실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최계영 센터장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다.”며, “교수들도 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학생들과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가며 필요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펠로우 세션부터 답안 첨삭, 개별 면담, 공직 진출 관련 멘토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길을 터 주고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최계영 센터장의 말처럼 “교육을 통한 양성”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12기) 신서연·이린 학생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설립



권영준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0년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를 발족하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능 외에도 법학의 저변을 넓힐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된 권영준 교수를 만나 아래와 같이 학문후속양성센터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Q.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설립 계기 및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래, 우리 법대는 법률가 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반면 미래의 법학자를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법학의 토대가 탄탄해야 하고, 그 토대는 결국 법학자들에 의해 조성됩니다. 이에 우리 법대는 미래의 법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배경 하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차 법학자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의 풀을 일찍부터 넓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교수가 아니라도 학자적 소양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실무가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예

비 학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외연을 넓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교수요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목적이 로스쿨 학생, 일반대학원생과 같은 잠재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업목적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연구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실무가도 있고 전업 연구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수가 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Q. 먼 미래의 관점에서 센터의 비전이나 계획, 목표는 무엇인지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고 연구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울러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통 로스쿨은 로펌이나 법원 등 실무계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깊이 있는 학문입니다. 실무 역시 법학의 토대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요. 이러한 법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법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키워 법학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법학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동훈, 1학년(12기) 이태희 학생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SNU Law 감사의 밤 행사

2020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리 홀에서 'SNU Law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법대의 발전에 힘써준 기부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목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양현의 최경준 변호사, 서울법대 각 센터장 및 펠로우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장승화 원장의 환영사, 내·외빈 소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를 비롯한 각 센터의 비전과 활동 소개, 그리고 만찬의 순서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내·외빈 소개 순서에서는 행사 취지에 따라 각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장승화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와 교육지원센터의 개소,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김장리홀의 축하와 감사를 함께 전하는 자리”라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고, 이어 “서울법대가 Leading 로스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



故 이승윤 판사 추모 장학금 전달식

2020년 8월 12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리 홀에서 '故 이승윤 판사 추모 장학금 전달식'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여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동진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최계영 교수와 조인영 교수가 장학증서 및 부상(副賞)을 수여하였다.

故 이승윤 판사는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법원의 심리방식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폭넓은 연구를 하였으며, 젠더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성평등의 법원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로로 쓰러진 뒤 끝내 눈을 뜨지 못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문집 「반짝반짝 빛나는 판사 이승윤」이 발간되었으며, 고인의 유족은 고인과 같은 책임감 있는 여성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SNU Vis Moot Skubi 팀 우승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1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020년 8월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SNU Vis Moot Skubi 팀이, 최우수 구두변론상은 서울대 로스쿨 박정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정부, 현업, 학계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WTO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통상법 전문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총평하였다.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행진 팀 최우수상 수상

2020년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국 14개 로스쿨 22개 팀이 예선에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행진 팀과 공심단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 및 상금을 받았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간접적으로 행정심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법률센터, 2020년 하계방학 맞아 프로보노(법률봉사) 활동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0년 하계방학을 맞이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법률봉사) 활동을 주최하였다. 각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관련 공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당사자들에게 직접 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로스쿨에서 배운 법적 지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공익법률센터가 준비한 프로보노는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지역사회 법률구조, 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 외국인의 난민재신청 조력, 공익제보자 지원 입법안 및 어플 제작,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조력,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지원과 같이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48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활동은 지속되는 장마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을 의뢰한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귀한 시간을 내어 활동에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학생들이 만든 법률매뉴얼이 미혼모 당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밝혔다. 프로보노에 참여한 양희원(로스쿨 1학년) 학생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법을 공부할 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사회 법률구조 사건 지원에 참여한 서해나 학생(로스쿨 1학년)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조력에 참여한 박서현 학생(로스쿨 1학년)은 “법학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학우들에게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온 1학년 학생들은 소규모로 진행된 이번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해소하지 못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구소·센터 소식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공동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0년 6월 27일 17동 서암홀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020년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라는 주제 하에 최근 국제법학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신진학자 8명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김선일 교수(경찰대), 김효권 박사(고려대), 원유민 교수(서울대)가 각각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보충성 원칙, 국제변경권, 국제인권조약기구 모니터링 제도와 국제인권권고의 국내이행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민철 박사(서울대), 이상재 군법무관(육군 제2작전사령부), 정재민 박사(서울대)가 각각 경제미화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와 분쟁해결,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 국제법 주체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곽동철 박사(한국무역협회), 이주형 심의관(대법원)이 각각 디지털 시대의 통상 교섭, 디지털 교역상 비차별대우 원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제법의 새로운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룬 이날 발표와 토론은 국제법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지식재산과 데이터법정책의 이슈와 과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2020년 8월 25일 '지식재산과 데이터법정책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데이터 활용과 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일본에서의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은 변호사(김앤장), 김정선 부자(SK telecom T3K Product Strategy Hub), 김이식 대표이사(이산링크스), 이승호 변호사(네이버)가 참여하였다.



제71회 & 제72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0년 5월 1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자로 참여하였고,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 허용 범위와 그 한계', 채성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가명정보처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 김진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의 중복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운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이상현 실장(SK텔레콤), 이진규 이사(NAVER)가 참여하였다. 2020년 6월 30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미디어 융합시대의 광고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원우

센터장이 진행한 이 세미나에는 이시훈 교수(계명대)가 '광고 매체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홍문기 교수(한세대)가 '신유행 광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도승 교수(목포대)가 '광고 자율규제의 현안과 시사점-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이희복 교수(상지대), 김태오 교수(창원대), 안정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종구 박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재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현 실장(SK텔레콤), 박진희 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73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0년 7월 1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7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원우 센터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 세미나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가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대가 체계의 법적 문제-주파수명회제 도입을 중심으로', 송시강 교수(홍익대)가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이승훈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가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김용규 교수(한양대), 이성엽 교수(고려대), 박종수 교수(고려대), 정필운 교수(한국고원대), 이상현 실장(SK텔레콤), 김순용 상무(KT), 김윤호 상무(LG유플러스)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2020년 5월 31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를 발행하였다.



2020년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재난, 인권, 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비학위과정으로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을 개설한다. 센터는 지난 13년간 시민강좌(2007년~2011년 「NGO와 법의 지배」, 2012년~2013년 「NGO와 법의 대화」, 2014년~2019년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분야 NGO 활동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젠더, 아동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연속 강좌 형태를 진행하여 왔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전문과정'에서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환경과 일상적 삶이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 및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아서 "재난, 인권, 법"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다. COVID-19, 세월호사건 등 재난의 사회적 측면을 조명하고, 재난이 야기하는 인권문제, 차별효과, 그

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방안 등 재난의 법적·인권적 측면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익소송, 공익입법운동, 여성, 아동, 난민, 장애에 관한 인권문제 등을 다룬다. 모든 강좌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 혹은 법전문가의 강사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의 연구발표가 이어짐으로써 공익인권 분야의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공익인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9월 10일에 개강하여 12월 10일 수료식까지 매주 목요일 오프라인 현장강의 및 온라인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제2차 글로벌 경쟁과 혁신 포럼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0년 7월 13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20년 제2차 글로벌 경쟁과 혁신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경원 교수(동국대)가 '배달앱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영수 교수(경북대)가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규범성에 대한 분석(원인의 진단과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Roundtable Discussion에서는 권남훈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김성환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박준영 선임연구원(서울대 경쟁법센터), 이민호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2020년 제1차 플랫폼 경쟁법 연구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0년 7월 15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20년 제1차 플랫폼 경쟁법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플랫폼의 레버리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이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Roundtable Discussion에서는 박민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영국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2020년 제1차 경쟁정책포럼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0년 8월 19일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에서 2020년 제1차 경쟁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경쟁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대)가 ‘통신분야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와 대리점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Roundtable Discussion에서는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前 공정거래위원장), 박준영 선임연구원(서울대 경쟁법센터), 오승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그린 뉴딜 법률안 연구 등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에서는 조홍식 교수가 2020년 5월,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로 임명되어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20년 9월 11일 일본 Meiji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in the Asia-Pacific 2020 in Tokyo” 심포지움과 2020년 9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회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The Green New Deal in Korea: A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the Green Growth’라는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할 예정이다.

조홍식 교수는 책임연구원으로 2020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연구과제인 “그린 뉴딜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법령 정비 방안”을 통해 그린 뉴딜 법률안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 2020년도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융복합 연구(책임연구원 이재협 교수)”로 최종 선정이 되어 2020년 8월부터 1년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의 효과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 뉴딜을 둘러싼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의 가속화

를 위한 핵심 기술 및 인프라의 보급 솔루션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분산화 및 디지털화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달성을 위한 기술적, 법·정책적 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1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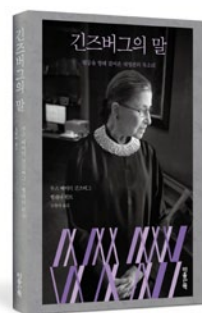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20년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시리즈 제1권으로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저자: 강광문 교수)을 출간 하였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김도균 교수



보르헤스의 “도서관은 마법의 동굴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가득하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책을 펼치는 순간,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는다”로 독서의 의의를 설명한 김도균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네 권을 추천하였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5)

통찰력 가득한 저서입니다. homo(자연적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는 어떻게 person(윤리적·법적 주체로서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저자는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한 사회에서 성원권이 분배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을 헌법 제10조와 제11조의 해석에 적용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자는 출신성분과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이 현대 사회의 기본 작동원리라고 파악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환대받음에 의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해한 형이상학적 이론에 의거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재로 하여 사람에 관하여, 인간존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하는 이 저서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외, 오현아 옮김, 「긴즈버그의 말」(마음산책, 2020)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보고 감명 받고 법률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독자에게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다양한 시점과 장소에서 발언한 말들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조지프 피시킨,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Bottleneck Society)」, (문예출판사, 2016)

기회균등의 원리에 대해 다룬 역작입니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 있는 독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니구치 지로, 박정임 옮김, 「산책」(이숲, 2015)

만화입니다. 만화 <고독한 미식가>로 유명한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으로 목적 없이 주변을 거닐면서 드는 느낌, 감정, 생각을 더없이 잘 그려낸 수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느라 따분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우리에게 주변 산책의 기쁨을 일깨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주변 동네 산책으로 심신의 피로를 씻어내길 바랍니다.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을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구좌(1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ecure.donus.org/snulaw>
(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채널. [snulawfund](https://open.kakao.com/o/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 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0. 5. 1 — 2020. 8. 31

김홍재*	10,000,000	2019. 7. 10	이경준	100,000	2020. 6. 23	전일호	10,000	2020. 7. 28	홍석재	50,000	2020. 8. 26
이의영	30,000	2020. 5. 12	유홍수	100,000	2020. 6. 25	최지석	10,000	2020. 7. 28	청파장학재단	13,298,000	2020. 8. 27
익명	500,000	2020. 5. 13	차영선	20,000	2020. 6. 25	홍석재	50,000	2020. 7. 28	한화디펜스(주)	24,000,000	2020. 8. 27
임용	2,000,000	2020. 5. 13	전일호	10,000	2020. 6. 26	정병기	10,000	2020. 7. 29	한화자산운용	24,000,000	2020. 8. 27
강민구	50,000	2020. 5. 21	최지석	10,000	2020. 6. 26	이의영	30,000	2020. 8. 11	방윤섭	100,000	2020. 8. 28
이경준	100,000	2020. 5. 21	홍석재	50,000	2020. 6. 26	최현진	7,000,000	2020. 8. 19	정병기	10,000	2020. 8. 28
유홍수	100,000	2020. 5. 25	방윤섭	100,000	2020. 6. 30	강민구	50,000	2020. 8. 21	한화에너지(주)	24,000,000	2020. 8. 28
차영선	20,000	2020. 5. 25	정병기	10,000	2020. 6. 30	이경준	100,000	2020. 8. 21	한화엘앤씨(주)	24,000,000	2020. 8. 28
전일호	10,000	2020. 5. 26	한봉희	5,000,000	2020. 7. 08	한화생명보험(주)	24,000,000	2020. 8. 25	한화엘앤씨(주)	24,000,000	2020. 8. 28
최지석	10,000	2020. 5. 26	이의영	30,000	2020. 7. 13	한화손해보험(주)	24,000,000	2020. 8. 25	한화(주)	24,000,000	2020. 8. 28
홍석재	50,000	2020. 5. 26	강민구	50,000	2020. 7. 21	유홍수	100,000	2020. 8. 26	한화(주)	24,000,000	2020. 8. 28
방윤섭	100,000	2020. 5. 28	이경준	100,000	2020. 7. 21	육지희	10,000	2020. 8. 26	한화투자증권	24,000,000	2020. 8. 28
정병기	10,000	2020. 5. 28	김·장 법률사무소	200,000,000	2020. 7. 24	전일호	10,000	2020. 8. 26	한국도선사협회	15,000,000	2020. 8. 31
이의영	30,000	2020. 6. 11	유홍수	100,000	2020. 7. 27	차영선	20,000	2020. 8. 26			
권영준	10,000,000	2020. 6. 19	방윤섭	100,000	2020. 7. 28	청호불교문화원	6,649,000	2020. 8. 26			*31호 기입 누락
강민구	50,000	2020. 6. 23	육지희	10,000	2020. 7. 28	최지석	10,000	2020. 8. 26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